

성별, 자아존중감 및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가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통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s on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Behavior in Male and Female Freshmen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초빙교수 홍 성 레*

초빙교수 정 여 주**

Dept. of Social and Child Welfare, Woosong Univ.

Visiting Professor : Hong, Sung-Rye

Visiting Professor : Jung, Yeo-J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sexual behavior.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self-esteem,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freshmen as important predictors of sexual behavior and examined the dynamic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were 1,806 university freshmen: 932 males and 828 females. All respondents submitted their answers on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s that used PASW 18.0, and AMOS 18.0, a statistical program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o estimate the hypothes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Relationship satisfactions mediated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behavior. (2) Sexual behavior between male and female freshmen showed different influences on the test of the structural model invariance across the groups.

▲주요어(Key Words) : 신입생(freshman), 자아존중감(self-esteem), 인터넷음란물중독(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관계만족(relationship-satisfactions), 성행동(sexual behavior)

* 주 저 자 : 홍성레 (E-mail : finetree7@hanmail.net)

** 교신저자 : 정여주 (E-mail : yjjung76@hanmail.net)

I. 서론

청년기에 속하는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과도기적 상태로서,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이성관계가 자유로워지는 시기이다. 대학생 시기는 신체적인 성장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성인으로서 자신의 성행동을 주체의식을 갖고 사회적·경제적·심리정서적으로 온전하게 스스로 책임지기는 어려운 시기이며, 자유로운 성행동이 허용되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도록 요구 당해왔던 청소년이 대학에서는 자유분방하게 폭넓은 이성 관계를 경험하기도 하며, 성적 활동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진다(Kang, 2007). 2004년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각종 성병에 걸리는데 이중 20~29세의 청년이 가장 높은 성병감염률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Hur & Cho, 2007).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시사저널, 2011)에 따르면, 대학생의 89%가 혼전 성관계에 대해 긍정적이고, 39.9%는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성관계 상대자로 90.7%가 이성친구라고 응답했다. Lee and Ahn(2004)의 연구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성행동을 경험하지만 성적욕구와 개인의 가치관 및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청년기 대학생들의 성행동은 대학생들의 진로·건강·학업·성적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Kim, 2011) 이들의 성행동에 관한, 특히 성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대학생들의 성경험 실태나 성지식 등을 다루는 기초적인 연구(Moon, 1997, 1998; Ahn, Chung, & Lee, 1997)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역할 정체감 유형(Sung, 2009)이나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Lee, Ha, & Chung, 2005)등을 다루기도

했지만,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학생 성행동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은 성행동의 실태나 그것의 심리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연구되어온 경향이 있으므로, 대학생의 성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성지식은 매우 낮은 반면, 성행동은 개방적이어서(연합뉴스, 2000), 대학생들의 성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대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성에 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무분별한 성행동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성행동을 심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Kong, 2003; Nam, 2003; Carpenter, 1998). 특히 최근에는 음란물중독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행동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Kim, 2003). 또한 친구나 가족들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개인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성행동에 있어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Park, 2004)도 있다. 그러나 관계만족과 같은 변인들이 성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가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관계인 친구나 부모, 혹은 가족과의 관계만족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성행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개변인으로서의 관계만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신입생들의 성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 및 관계만족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또한 아직 미혼인 청년기 대학생의 성행동을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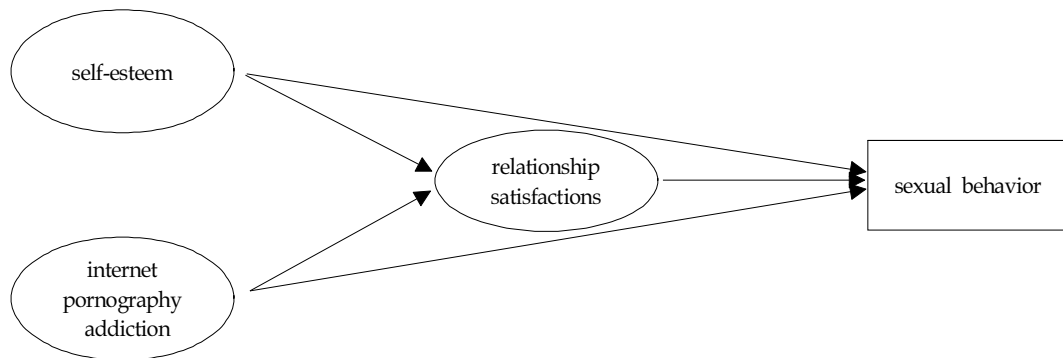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친구(또래)와 부모, 그리고 가족 관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성행동,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와 성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자아존중감은 성행동에 영향이 있는가?
- <연구문제 2>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는 성행동에 영향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관계만족은 성행동에 영향이 있는가?
- <연구문제 4>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는 관계만족을 매개로 성행동에 영향이 있는가?
- <연구문제 5>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가 관계만족을 매개로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성행동의 개념은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행동은 성과 관련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서(Kim, 2011), 본 연구에서는 성행동을 자기 자신과 파트너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으로 성적인 대화, 손잡기, 키스, 애무, 성관계를 포함한 영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성행동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성별에 따라 성인식, 성태도, 성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성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주고,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행동이 높으며(Jeon, Lee, & Rhee, 2004), 특히 주로 남성이 여성보다 혼전성교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며, 성교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9; Moon, 1998; Kim, 2003; Choi & Ha, 2004; Sohn & Chun, 2005; Lee, Ha, & Chung, 200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첫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의 연구(Sohn & Chun, 2005)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혼전성관계를 허용할 확률이 4.8배 높으며, 혼외성관계를 허용할 확률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Woo(2011)의 연구에서는 성허용성이 남성의 경우 높게 나타났지만, 남녀 대학생간의 성행동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보이기도 하

지만, 다수의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성행동은 남녀간의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반영한다(Rosenberg, 1965; Chen et al., 2006). 청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행복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 하나로, 자기 자신을 가치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각 개인이 자기 내면에 지니게 되는 힘이다(Hong, 2010).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높다는 연구들(Han, Park, & Baek, 2001; Lee, Ha, & Chung, 2005)에서 상관이 없다는 연구들(Flick, 1986, Kim, 2002)에 이르기까지 연구결과가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남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성행동이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는 성행동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Kim, 2011)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행동이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녀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에서는 다르게 작용하는 만큼,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성은 성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에 영향을 줌에 있어 성별의 영향력을 탐색한다.

3)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음란물 중독은 사이버 섹스 중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X등급 이미지, 야한 게임이나 동영상, 음란 소설, 만화 등과 이성간의 오프라인 상의 접촉제안, 음란한 채팅과 메일에 접촉하는 행동을 말하며, 이러한 대상에 과다 몰입하거나 강박적으로 접속하는 증세를 말한다(Kim, 2003). Lee and Sung(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음란물을 접촉한 아이들의 상당수가 성적 충동을 느끼며,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과 접촉하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이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성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i(2001)의 연구에서도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자위행위, 성행위, 성폭력 경험, 채팅이나 전화를 통한 음란대화, 성추행 등 바람직하지 않은 성행동이 나타났다.

한편, 음란물이 성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 경험이 증가할수록 성갈등과 성비행이 증가하고,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음란물 접촉이 오래될수록 비행은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음란물을 접촉한 후 느끼는 충동의 정도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i, 2001; Lee, 2004; Kim, et al., 2010). Nam & Lee(2005)의 연구에서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중독 및 성비행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정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이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음란물의 접촉이 높을수록 성행동과 성비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음란물중독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임을 제시한다.

4) 관계만족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접하는 환경이며, 자녀가 심리적·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환경이다. 또한 가정환경에서 중추가 되는 부모는 자녀가 가장 가깝게 관찰할 수 있는 이성관계의 모델이 된다. Moon and Lee(200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족생활만족도는 성의식 및 성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m and Lee(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이버섹스 중독이 약화된다고 보고하였다. Ha, Lee, and Chung(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성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직접적인 성행동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와의 관계만족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도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애착이 청소년들의 위험성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Kim, 2008).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이 약할수록 위험성행동을 비롯한 비행 수준이 높고(Oh, 2006; Lee, 2008), 음란물 접촉, 공격적 행동, 성비행의 빈도가 증가하며, 또래로부터 거절을 경험할수록 위험성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04). 이처럼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만족, 그리고 친구(또래)와의 관계만족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2. 성행동 매개요인으로서의 관계만족

1) 자아존중감과 관계만족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관계 자체를 저평가하게 된다(Murray, Holmes, & Collins, 2006).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종의 방어기제와 같은 측면을 갖게 되는데, 이는 상대에 대해 갖고 있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망가뜨려서 건강한 관계를 붕괴시킨다(Murray et al., 2003).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위협에 처할 때, 상대와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Murray, Holmes, & Collins, 2006), 자아존중감

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3)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과 신뢰감, 이해성 등의 대인관계 능력 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고, Lee(2011)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2010)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 즉, 한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행동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Jang(2011)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가족과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관계만족을 매개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와 관계만족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을수록 대인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고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느껴서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게 된다(Young, 1996; Nam, 2009; Choi & Ha, 2011).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집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경우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혼자 여가를 보내며, 인터넷을 과다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Moon, Kim, & Park, 2005)으로 나타났다.

Koo and Kim(2007)의 연구에서, 음란물중독정도가 심한 청소년들은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Choi and Ha(201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을수록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다른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인터넷음란물에 빠져 있어, 또래친구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한 Nam and Lee(2002)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섹스 중독은 성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부모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이버섹스중독이 약화되었다. 이처럼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친구와의 관계나 가족 내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음란물중독 정도와 관계만족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대학생은 932명(53.0%), 여자 대학생은 828명(47.0%)으로 남자 대학생이 좀 더 많았다. 종교는 '없다'는 응답이 953명(5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420명(24.0%), '불교' 215명(12.3%), '천주교' 131명(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한 고등학교의 유형은 '인문계고'가 1,548명(88.4%)으로 가장 많았고, '실업고'가 148명(8.4%), '특수목적고' 45명(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혼인상태로는 '양친 기혼'이 1,563명(8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양친 이혼' 105명(6.0%), '모만 생존' 30명(1.7%), '부만 생존' 27명(1.5%), '재혼' 20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계층 평가에 있어서는 '중류계층' 1,030명(5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하계층' 409명(23.4%), '중상계층' 209명(12.0%), '하류계층' 81명(4.6%), '상류계층' 18명(1.0%) 등의 순이었다.

2. 조사도구

1) 성행동

성행동척도는 Hur(2001) and Kim(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Kim and Kim(2008)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성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성행동을 "없다. 손잡기, 포옹, 키스, 가슴을 중심으로 한 애무, 성기를 중심으로 한 애무, 한번의 성관계, 서너번의 성관계, 여러번의 성관계"로 분류하였으며 가장 성행동의 정도가 높은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만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성행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성행동 점수는 최저점 0점에서 최고점 9점으로 분포되었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이며, 1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측정모형을 분석할 때에는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들의 속성을 긍정 자존감과 부정 자존감으로 분류하여 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200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0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52$ 로 나타났다.

3) 인터넷 음란물 중독

인터넷 음란물 중독을 위해 사용한 인터넷 음란물 중독척

도는 Young(2002)이 개발한 인터넷 음란물 중독검사(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를 토대로 Lee(2003)가 번안한 것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0)에서 총10문항만 선별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음란물을 통한 보상요구 여부, 통제조절력과 행동상의 문제, 비정상적인 온라인 성적 행동 등을 포함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척도이므로 문항들을 무작위로 묶어서 4개의 측정변수(인터넷음란물 중독 1, 2, 3, 4)로 구성하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07$ 이었다.

4) 관계만족

관계만족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을 둘러싼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각각의 만족도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Hong(2011)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총 3문항이다. 사용한 척도는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까지 7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alpha=.871$ 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다.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자료 수집은 2011년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총 1,80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오류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PASW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적합도 수준과 각 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등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모형 평가 지수로 사용하였다. 중분 적합도 지수인 TLI,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그리고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이며, .10보다 크면 바람직하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낸다(배병렬, 2007). 셋째, 관계 만족이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를 매개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는 부적 상관관계 ($r=-.203, p<.05$), 자아존중감과 관계만족은 정적 상관관계 ($r=.490, p<.05$), 자아존중감과 성행동은 정적 상관관계 ($r=.078, p<.05$), 그리고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는 관계만족과 부적 상관관계($r=-.212, p<.05$)를 보였다. 인터넷음란물중독 정도와 성행동은 정적 상관관계($r=.097, p<.05$)를, 그리고 관계만족과 성행동은 정적 상관관계($r=.074, p<.01$)에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2.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가정한 측정변수들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수들의 왜도(skew)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왜도의 경우 2가 넘지 않으면, 첨도의 경우는 7이 넘지 않으면 정상성이 확보되어 추정에 영향을 추지 않는데(Curran, West & Finch, 1996), 분석결과 왜도는 1을, 첨도는 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가 정상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와 같이 χ^2 값은 357.847이며, $p=.000$ 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으나, χ^2 검증은 영가설 내용이 너무 엄격할 뿐 아니라 표본 크기에도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모형은

Table 1. Correlation of Variables

(N=1,806)

| variables | self-esteem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sexual behavior |
|--------------------------------|-------------|--------------------------------|----------------------------|-----------------|
| self-esteem | 1 | | | |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203** | 1 | |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490** | -.212** | 1 | |
| sexual behavior | .078** | .097** | .074* | 1 |

* $p < .05$, ** $p < .01$

Table 2. Path Coefficient and Significance Test of Measurement Model

(N=1,806)

| variables | Estimate | S.E. | C.R. | |
|--------------------------------|------------------------------------------------------------------|--------|------|------------|
| self-esteem | self-esteem ← positive self-esteem | 18.135 | .089 | 202.958*** |
| | self-esteem ← negative self-esteem | 16.592 | .086 | 192.073*** |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1 | 5.213 | .056 | 92.893*** |
|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2 | 2.727 | .035 | 78.714*** |
|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3 | 3.062 | .039 | 78.424*** |
|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4 | 4.507 | .053 | 84.946***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friends relationship | 5.115 | .032 | 158.784*** |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parents relationship | 5.465 | .034 | 161.467*** |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family relationship | 5.512 | .033 | 164.761*** |

$\chi^2=357.847(p=.000)$, TLI=.943, CFI=.969, NFI=.966, IFI=.969, RFI=.938, RMSEA=.078

*** $p < .001$

복잡한 현상을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구자의 모델이 완벽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한다면, 만족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따라서 적합도 지수를 통한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 .943, CFI = .969, NFI = .966, IFI = .969, RFI = .938, RMSEA = .07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Table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 관계만족을 나타내는 각각의 측정변수들의 유의수준이 .000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2)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ble 3>와 같이 χ^2 값은 357.847이며, $p=.000$ 으로 나타났다.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 .943, CFI = .969, NFI = .966, IFI = .969, RFI = .938, RMSEA = .07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성행동에 있어서 자아존중감($\beta=.168$),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beta=.110$), 그리고 관계만족($\beta=-.067$)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높아졌으며,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도 높아졌다. 반면에, 관계만족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계만족에 있어서 자아존중감($\beta=.504$)과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beta=-.119$)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관계만족이 높아지고,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가 낮을수록 관계만족이 높아졌다.

3) 효과의 분해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모형은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간접효과는 매개변수의 비표준화계수를 곱

Table 3. Path Coefficient and Significance Test of Structural Model (N=1,806)

| variables | B | S.E. | C.R. | β |
|-------------------------------------------------------------|----------|------|--------|---------|
| sexual behavior ← self-esteem | .186*** | .039 | 4.787 | .168 |
| sexual behavior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188*** | .044 | 4.273 | .110 |
| sexual behavior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187* | .087 | -2.141 | -.067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self-esteem | .200*** | .014 | 14.035 | .504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072*** | .015 | -4.881 | -.119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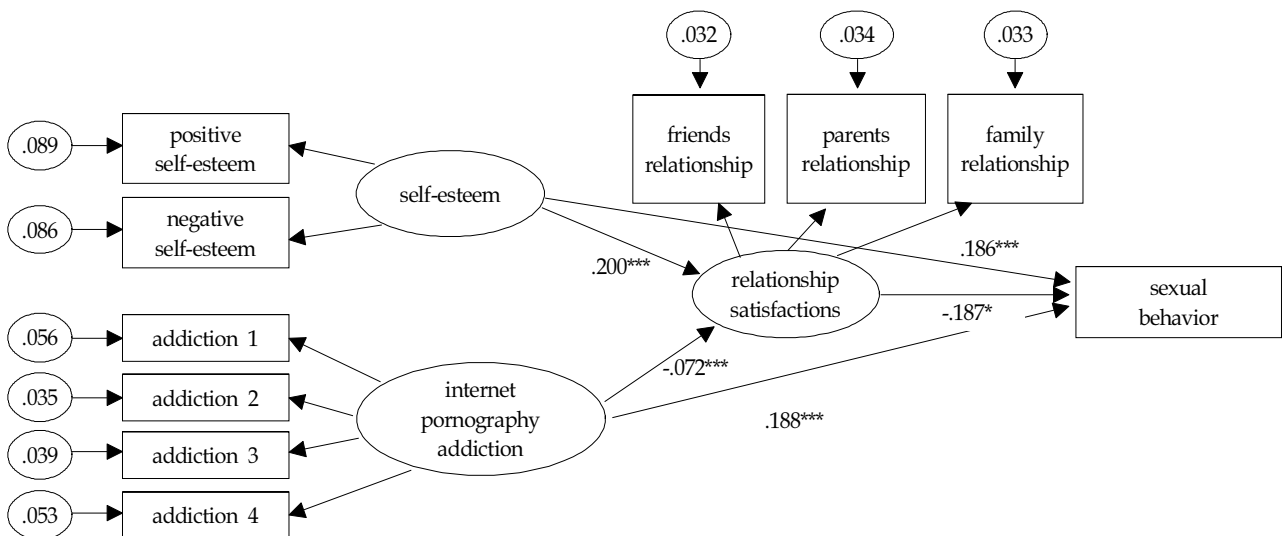


Figure 2. Structural Model

Table 4. Effect Decomposition of Structural Model(β)

(N=1,806)

| variables | direct effect |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
|-------------------------------------------------------------|---------------|-----------------|--------------|
| sexual behavior ← self-esteem | .165** | -.033* | .132** |
| sexual behavior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106** | .008* | .114** |
| sexual behavior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066* | .000 | -.066*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self-esteem | .500** | .000 | .500**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117** | .000 | -.117** |

* $p < .05$, ** $p < .01$

해서 구하게 된다. 총효과(total effect)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의 합으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는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경우 직접효과만 고려하였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막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아존중감, 인터넷음란물중독, 관계만족
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에 의해 그 영향력이 완전하게 파악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최종 구조모형 분석결과 후, 총효과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beta=.132$)과 인
터넷음란물중독정도($\beta=.114$)는 정적인 영향이 있고, 관계만족
($\beta=-.066$)은 부적인 영향이 있다. 관계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beta=.500$)은 정적인 영향이 있고, 인
터넷음란물중독정도($\beta=-.117$)는 부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인
다. 따라서 [경로1]은 자아존중감 → 관계만족 → 성행동의
경로를, [경로2]는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 → 관계만족 → 성
행동의 경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앞의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중
독정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만족이 매개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관계만족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
증결과, [경로1]의 경우는 $z=2.568(p<.05)$ 로, 자아존중감이
관계만족을 통해 성행동에 영향을 주며, [경로2]는 $z=-2.250$
($p<.05$)로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가 관계만족을 통해 성행동
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만족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가 관계만족에 영향
을 줌으로써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중독 및 관계만족이 성행동에 대

해 여전히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관계만족
은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 사이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남녀 집단의 동질성분석

집단간 비교는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고찰하는
분석기법이다. 즉, 집단간 비교는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의 경
로계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하지를 검증할 때 이
용된다. 집단간 비교는 교차타당성을 적용한 분석방법이다
(Byrne, 2001). 즉, 교차타당성이 같은 모형에서 두 개의 표
본이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 모형이 각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
는 측정 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등가제약의 과정을 거친다.

1) 집단간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증

아래의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저모형에서 측
정동일성의 경우는 $TLI = -.002$, $RMSEA = -.024$ 로 적합도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측정동일성에서 측정 및 절편 동일
성은 TLI 는 $-.020$, $RMSEA$ 는 $\Delta.010$ 으로, 그리고 측정 및 절
편 동일성에서 측정, 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은 변화가 없
어서, 크게 모델의 변화가 없어 만족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χ^2 의 변화량은 기저모형에서 측정동일성의 경우는
27.476(24)의 변화가 있었고, 측정동일성에서 측정 및 절편
동일성의 경우는 236.149(12), 그리고 측정 및 절편 동일성
에서 측정, 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에는 33.126(3)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χ^2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TLI 와 $RMSEA$ 지수만 참고한다.

2) 남녀 집단간 구조모형 검증

주요 변인의 측정모형 동일성이 남녀집단에서 검증되었
으므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Table 5. Invariance Power

(N=1,806)

| | $\chi^2(df)$ | $\Delta\chi^2(\Delta df)$ | TLI | RMSEA |
|--------------------------------------------------------|--------------|---------------------------|------|-------|
| model 1: configural invariance | 345.857(24) | | .943 | .086 |
| model 2: metric invariance | 373.333(48) | 27.476(24) | .941 | .062 |
| model 3: metric, scalar invariance | 609.482(60) | 236.149(12)*** | .921 | .072 |
| model 4: metric, scalar and factor variance invariance | 642.608(63) | 33.126(3)*** | .921 | .072 |

*** $p < .001$

Table 6. Parameter Estimates of Models of Sex Group

(N=1,806)

| | male | female |
|-------------------------------------------------------------|----------|---------|
| sexual behavior ← self-esteem | .273*** | .063 |
| sexual behavior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203** | .062 |
| sexual behavior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207* | -.109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self-esteem | .204*** | .195***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091*** | -.033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Sex Group of Baseline Model and Path Coefficient with Invariance Constraint

(N=1,806)

| | Δdf | $\Delta\chi^2$ | ΔTLI |
|-------------------------------------------------------------|-------------|----------------|--------------|
| sexual behavior ← self-esteem | 1 | 7.668*** | .000 |
| sexual behavior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1 | 2.422 | -.001 |
| sexual behavior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1 | .338 | -.001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self-esteem | 1 | .110 | -.001 |
| relationship satisfactions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1 | 3.236 | .000 |

*** $p < .001$

남녀 두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된 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chi^2=620.674$, TLI = .919, CFI = .947, NFI = .941, IFI = .947, RFI = .910 RMSEA = .066)를 보였으며, 남녀 각 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편, 남녀 두 집단 사이에 혹시나 존재할지도 모를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chi^2=642.608$, TLI = .920, CFI = .944, NFI = .939, IFI = .944, RFI = .912, RMSEA = .072).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만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7.668$, $p<.001$). 이는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의 계수는 남성은 .273($p<.001$), 여성은 .063으로 남성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 집단에 비해 남성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의 정도가 높아지고, 관계만족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낮아질 것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관계만족이 높아지고,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가 높을수록 관계만족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이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Table 6>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

관계만족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음란물 중독정도가 관계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여자 대학생 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주는 경로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신입생의 경우 남녀간의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반영한다.

<Table 7>의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을 가한 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에 영향을 줌에 있어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계만족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후, 청년기 남녀 대학 신입생 집단 간의 구조모형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 가정했듯이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가 관계만족의 매개역할을 통해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인터넷음란물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은 증가하였으나, 관계만족이 높으면 청년기 대학 신입생의 성행동은 감소하였다. 이는 관계만족의 정도가 성행동을 조절하여 성행동을 줄어든게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행동에 있어 친구(또래)와 부모 및 가족 관계만족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높다는 연구들(Han, Park, & Baek, 2001; Lee, Ha, & Chung, 2005)을 지지한다. 또한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음란물과 접촉하면 강한 호기심과 성충동을 경험하며(Lee & Sung, 2001), 음란물이 성비행이나 성경험 및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Ji, 2001; Lee, 2004; Kim et al.,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친구·부모·가족과의 관계만족이 높으면 성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가족생활만족도가 성의식 및 성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Moon and Lee(2003)의 연구와, 부모와 성 관련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직접적인 성행동이 감소함을 제시한 Ha, Lee, and Chung(2006)의 연구, 그리고 또래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이 약할수록 성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 연구들(Kim & Lee, 2004; Oh, 2006; Kim, 2008; Lee, 2008)을 지지하고 있다.

청년기 대학생활은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환경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자유로운 생활환경 속에 놓이게 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직업준비를 통해 사회적응을 위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할 대학 시기에, 미혼인 대학생의 무분별한 성행동은 미래의 생활과 진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우려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친구와 부모,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신입생의 성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년기 대학생의 관계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기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 관계를 비롯하여 친구와 또래 관계 개선방안, 부모와 가족 관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보고, 관계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성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에서 남녀 대학 신입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로과정에서 확인되는 가장 명확한 남녀차이는 성행동에서 남자 대학생 집단만이 뚜렷한 경로는 보였고, 여자 대학생 집단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특히, 인터넷음란물중독의 정도가 남자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존의 연구들(Nam, 2009; Choi & Ha, 2011)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남자 대학생의 인터넷음란물중독 정도가 여자 대학생보다 심하다는 연구결과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를 통해 성행동 조절을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성별에 따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높다는 연구들(Han, Park, & Baek, 2001; Lee, Ha, & Chung, 2005)도 있고, 자아존중감과 성행동이 상관이 없다는 연구들(Flick, 1986; Kim, 2002)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2006)의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들의 성교, 키스행위 등의 성에 대한 허용행동 자체가 자아존중감에 바탕을 둔 자신의 의지반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단순히 성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행동 조절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남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성행동이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는 성행동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적 상황에서 성행동에 대한 인식이 남녀 간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성은 자아존

중감이 높을 경우 성행동에 적극성을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 여러 가지 성이데올로기와 성에 대한 가치관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에 대한 조절이나 자제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행동은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대인관계적인 측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아존중감이 높다 하더라도 성행동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남성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에 적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예방 및 성교육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에 주로 초점을 두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성관계, 사랑유형, 대학생활만족도 등의 변인들을 포함하는 보다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성행동에 있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청년기 대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결과이다. 따라서 대학 시기를 넘어선 미혼의 청년들이나 기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탐색해본다면, 좀 더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경로과정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인과과정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표본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의 신입생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 특성을 포괄하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집을 활용하여 연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계만족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는 청년기 대학 신입생의 경우 성행동을 조절함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인터넷음란물 중독정도 뿐만 아니라 친구, 부모 및 가족 등의 관계적 역할과 관계만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REFERENCE

- 배병렬(2007).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시사저널(2011). '비밀스런' 성문 크게 열어젖히다. 2011. 11. 19. 연합뉴스(2000). 대학생 성지식 낮아, 성행동은 개방적. 2000. 3. 21.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0). **청소년 성문화 의식조사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 Ahn, Y. S., Chung, H. J., & Lee J. S.(1997).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sex. *The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research*, 15, 137-154.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yrne, B. M.(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arpenter, L. M.(1998). From Girls Into Women: Scripts for Sexuality and Romance in Seventeen Magazine, 1974-1994.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2), 158-168.
- Chen, S. X., Cheung, F. M., Bond, M. H., Leung, J. P.(2006). Going beyond self-esteem to predict life satisfaction : The chinese cas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 24-35.
- Choi, H. S. & Ha, J. C.(2011). A study on the factors inducing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2(3), 437-448.
- Choi, M. S. & Ha, N. S.(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4), 318-330.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 to non-normall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Flick, L. H.(1986). Paths to adolescent parenthood: Implication for prevention. *Public Health report*, 101, 132-147.
- Ha, S. H., Lee, J. Y., & Chung, H. J.(2006). The effect of parenting processes on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271-286.
- Han, I. Y., Park I. S., & Baek, Y. O.(2001). A research on risk factors adolescent sexual behaviors.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1), 138-148.
- Hong, S. R.(2006).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th.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5), 1-15.
- Hong, S. R.(2010). The perceptions on youth's family role sali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5), 151-166.
- Hong, S. R.(2011). Perceptions of the self-efficacy of youth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6), 71-87.
- Hur, J. K.(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and adolescent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Hur, T. K. & Cho, J. E.(2007). Condom negotiation strategi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Interactive perspective of sexual-risk behavior.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3, 413-61.
- Jang, S. H.(2011). *Self-estee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riend' sexual attitude and degree of sexual permissiveness in college studen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Jeon, G. S., Lee, H. Y. & Rhee, S. J.(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1), 45-68.
- Ji, J.(2001).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s experience of computer obscenities and sex-attitude and sex-behavior*. Yonsei University, Seoul.
- Kang, H. Y.(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Kang, J. H.(2011). *The relationship among types of dating, emotional experience, conflict resolving strategie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Myongji University, Seoul.
- Kang, S. J.(2010). *The influence of adults attachment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social unrest for parameter*. Suwon University, Gyeonggi-do.
- Kim, G. K.(2008). The effect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on risk behaviors and delinquency among incarcerated teenage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3), 241-255.
- Kim, G. S.(1999). *A study on teenagers' way of thinking and their behavioral states in the acquaintance to the opposite sex*. Dankook University, Seoul.
- Kim, H. W.(2003).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2), 309-328.
- Kim, I. S. & Lee, K. N.(2004). Parent attachment, peer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7(2), 97-113.
- Kim, J. H. & Kim, K. S.(2008).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 123-138.
- Kim, J. Y.(2005). *The analysis of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by communication style*. Sookmyung University, Seoul.
- Kim, J. Y., Choi, J. H., Lee, H. J., & Kim, K. H.(2010).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use of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violence - Based on the control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1, 79-106.
- Kim, M. H.(2003). *A study on family system,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Hoseo University, Chungcheongnamdo.
- Kim, M. O.(2002). *A study on adolescent' self-esteem and sexual behavior*.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M.(2003). A study on the reality of internet addiction and cyber-sexual addi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5(1), 3-83.
- Kim, Y. G.(2011).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sexual subjectivity, sexual meaning on their sexual behaviors*. Myongji University, Seoul.
- Kong, M. H.(2003). Sexual scripting of sexual behaviors among adolescent women who have participated in 'Compensated Dates'. *Family and Culture*, 15(3), 135-136.
- Koo, H. Y. & Kim, S. S.(2007). Relationships among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37(7), 1202-1211.
- Lee, J. R.(2008). Adolescents' attachments to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nd delinquenci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4), 563-574.
- Lee, J. Y., Ha, S. H., & Chung, H. J.(2005). The relationships of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among college

-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3), 149-172.
- Lee, M. S.(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S. H. & Sung, Y. S.(2001). Internet pornography and adolescents delinquency in cyberspace. *Journal of Adolescent*, 3(1), 111-124.
- Lee, S. J.(2003). A study on psychosocial trait and mental health of the adolescent's addiction to cyber sex.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5, 341-364.
- Lee, S. S.(2004). Strain, negative emotions, and cyber-delinquency : Testing a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18, 273-299.
- Lee, T. Y. & Ahn, K. S.(2004). The influence of self-concept and norm perception on college students' sexu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2), 141-161.
- Moon, I. O.(1997).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4(2), 95-112.
- Moon, I. O.(1998). Premarital sexuality: Attitudes, the assessment of arousal-sexuality permissiveness relationship, and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23(1), 149-163.
- Moon, S. H. & Lee, S. A.(2003). A study on the family system, consciousness and act about youth's sexuality. *The Social Welfare Research Review*, 12, 77-97.
- Moon, Y. I., Koo, H. Y., & Park, H. R.(2005). Scope of internet addiction and predictors of addiction in Korean children in early elementary school.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1(3), 263-272.
- Murray, S. L., Griffin, D. W., Rose, P., & Bellavia, G.(2003). Calibrating the sociometer: The relational contingencies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63-84.
- Murray, S. L., Holmes, J. G., & Collins, N. L.(2006). Optimizing assurance. The risk regulation system in relationships. *Psychological Bulletin*, 132, 664-666.
- Nam, C. Y.(2009). Colleg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 121-140.
- Nam, Y. J.(2003). *Sexual meaning type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arried in their 30s and 40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Nam, Y. O. & Lee, S. J.(2002).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Cyber-sex Addiction, Exposure to Cyber Obscenities and Cyber Sexu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3), 185-212.
- Nam, Y. O. & Lee, S. J.(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psychiatric symptoms to sexual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2(1), 35-49.
- Oh, H. J.(2006).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with parents and friends, and hope to juvenile delinquency*. Dankook University, Seoul.
- Park, J. H.(2004). *A study of the effects on sexual behavior among couples by communication characteristic between parents-late adolescent children, sexual attitude, and sexual communi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 coup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Rog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g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 Y.: Basic Books.
- Sohn, A. R. & Chun, S. S.(2005). Comparing sexual attitude, sexual initiation and sexual behavior by gender in Korean college students. *Health and Social Science*, 18, 73-100.
- Song, H. S.(2006). *A study of college students in relationship among sexuality, self-assertiveness, self-esteem*. Gyeong-Sang University, Daegu.
- Sung, M. H.(2009).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1), 73-80.
- Woo, G. H.(2011).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9.
- Young, K. S.(2002). *Tangled in the web: Evaluation and treatment of cybersexual addiction*. Refereed Workshop for the Pennsylvania Psychological Association.

- 접수 일 : 2012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12년 04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5월 29일